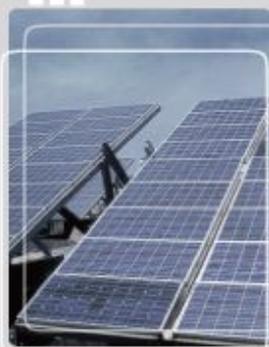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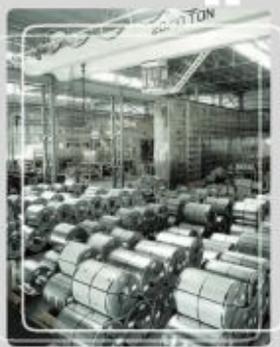


해외 시장에서 바라본 2012년 하반기 지역별 수출입 전망



**'해외시장에서 바라본
2012년 하반기 지역별 수출입 전망'
(2012.6.28)**

[목차]

요약.....	1
I. 개요.....	2
II. 지역별 하반기 수출 전망.....	8
III. 지역별 하반기 수입 전망.....	21

작성 : 정보기획실 문진욱 과장(jw2003@kotra.or.kr)

감수 : 정보기획실 한선희 실장(shan@kotra.or.kr)

요 약

□ (전체) 하반기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0% 증가한 2,957억 달러, 수입은 4.9% 증가한 2,791억 달러 전망

- 연간 수출은 전년대비 3.1% 증가한 5,723억 달러, 수입은 4.1% 증가한 5,458억 달러로 265억 달러 흑자 예상

<우리나라 수출입 추이 및 전망>

(단위 : 억 달러, %)

년 도	2010	2011	2012		
			상반기	하반기	연간
수출(증감률)	4,664(28.3)	5,552(19.0)	2,766(1.1)	2,957(5.0)	5,723(3.1)
수입(증감률)	4,252(31.6)	5,244(23.3)	2,667(3.3)	2,791(4.9)	5,458(4.1)
수지	412	308	99	166	265
무역규모	8,916	10,796	5,433	5,748	11,181

주 :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2012년 상반기와 하반기는 추정치

자료원 : KOTRA 해외무역관(바이어, 주재상사 등 1,987개 정보원 의견 종합)

□ (수출) 주력 시장 및 품목의 전체적인 수출 둔화세 불가피

- 중동(16.6%), 북미(12.0%), 아시아(8.5%) 등 지역은 호조 기대, 반면 유럽(△6.6%), 아프리카(△25.9%) 등은 부진 지속
 - 중국권(5.1%), 중남미(2.1%) 수출은 상반기 대비 개선 기대
 - 일본(1.7%), CIS(6.7%) 지역은 상반기 대비 증가세 둔화 예상
- 글로벌 경제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인해 선박, 반도체, LCD 등 주요 수출품목의 부진 지속
 - 자동차 및 부품류는 하반기 수출도 양호할 것으로 전망

□ (수입) 경기 부진에 따라 수입 증가율도 둔화

- 원자재 가격 하락과 국내경기 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등으로 수입도 전년대비 증가세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

I. 개요

□ (전체) 하반기 우리 수출 2,957억 달러, 수입 2,791억 달러 전망

- '12년 연간 수출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5,723억 달러, 수입은 4.1% 증가한 5,458억 달러 예상
- 유로존 재정위기, 중국 경착륙 우려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11년 실적과 '12년 전망치 대비 연간 수출입 큰 폭 둔화 우려

<우리나라 수출입 추이 및 전망>

(단위 : 억 달러, %)

년 도	2010	2011	2012		
			상반기	하반기	연간
수출(증감률)	4,664(28.3)	5,552(19.0)	2,766(1.1)	2,957(5.0)	5,723(3.1)
수입(증감률)	4,252(31.6)	5,244(23.3)	2,667(3.3)	2,791(4.9)	5,458(4.1)

주 :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2012년 상반기와 하반기는 추정치

자료원 : KOTRA 해외무역관(바이어, 주재상사 등 1,987개 정보원 의견 종합)

□ (지역별 수출) 중동, 북미, 아시아 수출은 양호한 반면, 유럽과 아프리카는 하반기에도 부진 전망

- 중동(16.6%), 북미(12.0%), 아시아(8.5%) 등 지역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수출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
- 유럽(Δ 6.6%), 아프리카(Δ 25.9%) 등 지역은 하반기 수출도 감소 예상
 - '12년 연말 기준 유럽(Δ 12.3%), 아프리카(Δ 29.3%) 연간 수출이 전년대비 감소 전망
- 다만 상반기 부진했던 對중국권 및 중남미 수출이 하반기에는 각각 5.1%, 2.1% 증가세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일본(1.7%), CIS(6.7%) 지역 수출은 상반기 대비 수출이 소폭 둔화 될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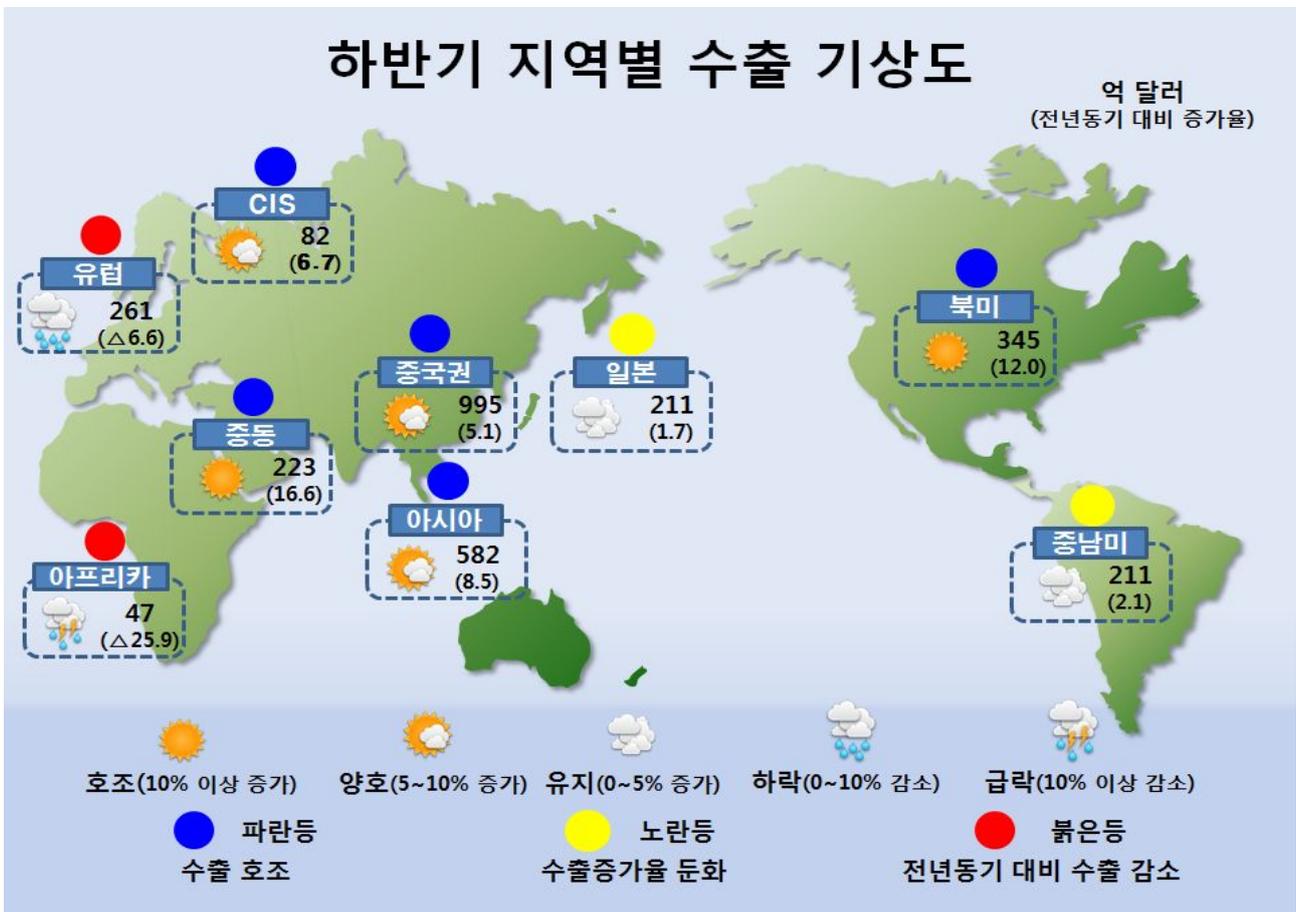
< 지역별 하반기 및 연간 수출 전망 >

(단위 : 억 달러, %)

지역	2011년				2012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비중
총계	2,736	2,816	5,552	19.0	2,766	1.1	2,957	5.0	5,723	3.1	100
중국권	887	947	1,834	16.8	881	△0.7	995	5.1	1,876	2.3	32.8
아시아	512	536	1,048	30.4	555	8.4	582	8.5	1,137	8.5	19.9
유럽	306	280	585	2.1	252	△17.6	261	△6.6	513	△12.3	9.0
북미	303	308	611	13.4	336	10.8	345	12.0	681	11.4	11.9
일본	189	207	397	40.8	193	2.1	211	1.7	404	1.9	7.1
중동	186	191	378	18.2	215	15.4	223	16.6	438	16.0	7.7
중남미	195	207	402	10.7	196	0.6	211	2.1	407	1.4	7.1
아프리카	82	63	146	42.4	56	△31.9	47	△25.9	103	△29.3	1.8
CIS	76	77	153	36.1	82	8.7	82	6.7	164	7.7	2.9

- 주1)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2012년 상반기 및 하반기는 추정치
 - 주2) 북아프리카지역은 '중동'에 포함
 - 주3) 아시아 지역은 동남아, 서남아, 대양주 지역의 합계
- 자료원 : KOTRA 해외무역관(바이어, 주재상사 등 1,987개 정보원 의견 종합)

< 2012년 세계 지역별 하반기 수출기상도 >



- (품목별 수출) 세계 경기침체 영향으로 자동차 및 부품을 제외한 주력 제품들 수출부진 우려
- (자동차 및 부품) FTA 효과 지속, 국산 자동차의 높아진 브랜드 인지도, 실속형 차량 구매 패턴 등으로 수출증가세 지속 전망
 - * 전년동기대비 수출증가율('12년 1~5월) : 자동차 19.3%, 자동차부품 11.2%
 - (기계류, 철강) 선진국 경기 침체와 중국 및 신흥국 수요 둔화 우려로 하반기에도 본격적인 수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철강은 글로벌 수요 부진과 동시에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등이 수출확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 * 철강 생산 및 수요 둔화로 세계 2위 철광석 수출국인 브라질의 1~5월간 철광석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 19% 하락, 최근 10년만에 최초로 감소한 상황
 - (석유제품) 글로벌 경기부진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으로 하반기 수출이 상반기 대비 부진할 것으로 예상
 - 6월들어 국제유가가 유로존 재정위기 악화 등 악재로 큰 폭 하락
 - * 국제유가 추이(석유공사 일일원유현물가격) : 두바이유 3.14일 \$124.22/배럴 → 6.22일 \$89.15/배럴, WTI 2.24일 \$109.58/배럴 → 6.21일 \$78.21/배럴
 - (반도체) 엘피다 파산 신청,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8, 인텔의 아이비 브릿지 등 출시로 시장여건이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
 - (석유화학)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의 수요 감소로 하락 전망
 - (가전, 컴퓨터, LCD) 세계시장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회복 부진으로 수출 부진 지속 예상
 - (섬유 및 의류) 세계시장에서의 전반적인 수요 부진과 동시에 중국산과의 가격경쟁 심화로 수출 여건 악화
 - (무선통신기기) 국산 스마트폰의 경쟁력 상승에도 불구하고 해외 생산 비중 증가로 수출 기여도 약화
 - * 무선통신기기 수출증가율(1~5월) : $\Delta 33.1\%$, 휴대폰 / 스마트폰 해외 생산 비중(%) : ('11년) 77.0 → ('12년 1분기) 80.1 / ('11년) 56.8 → ('12년 1Q) 79.7
 - (선박류)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저가 수주한 물량 인도 및 유럽부채위기에 따른 선박 수출의 감소는 지속 예상
 - * 선박류 수출증가율('12년 1~5월, 전년동기 대비) : $\Delta 23.8\%$

<주요 품목별 2012년 하반기 수출 기상도 - 수출 증가 예상>

품목명 (MTI코드)	전망	2012년 하반기 전망 (2011년 하반기 대비 증가율)
자동차 (7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산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인지도 향상, FTA 효과로 하반기 수출도 호조 기대 ▪ 다만, 경기둔화 여파와 해외생산 확대로 수출증가세는 전년동기대비 다소 낮아 질 것으로 예상
자동차부품 (7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자동차 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부품 수요 확대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 ▪ 다만 선진국발 경기부진으로 글로벌 기업 납품은 다소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
석유제품 (1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부진에 따른 국제 유가하락으로 수출 증가세가 상반기와 비교해서 둔화 될 것으로 예상 ▪ 참고로 1~5월간 석유제품은 전년동기대비 11.9% 증가해 수출품목 비중 1위를 차지(MTI 3단위 기준)
일반/정밀기계 (71,72,73,75,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진작을 위한 중국 등 주요 신흥국의 SOC,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수요 여건은 다소 개선 예상 ▪ 단,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부정적 영향으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의 본격적 수요 회복 기대 난망
철강제품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조선, 가전 생산 부진으로 국산 고급 강판 수요도 감소 ▪ 경기부진에 따른 철강수요 부진과 공급 과잉으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반도체 (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피다 파산 등으로 국내 제품의 시장 지배력은 높아 지겠지만 전반적인 수요 부진이 가장 큰 문제 ▪ 다만, 모바일 기기 보급 확대로 시스템 반도체 등의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기대



(10% 이상 증가)



(5~10% 증가)



(0~4% 증가)



(0~10% 감소)



(10% 이상 감소)

자료원 : KOTRA 해외무역관(바이어, 주재상사 등 1,987개 정보원 의견 종합)

<주요 품목별 2012년 하반기 수출 기상도 - 수출 감소 예상>

품목명 (MTI코드)	전망	2012년 하반기 전망 (2011년 하반기 대비 증가율)
석유화학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수출지역인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 지속으로 하반기 수출여건도 불투명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의 경기둔화 및 공급 과잉 영향으로 하반기에도 수요확대 기대 난망
가전 및 부품 (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경기위축으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의 가전수요 둔화 냉장고, 세탁기 등 국산 가전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등 수입규제 확대가 제약 요인
컴퓨터, 주변기기 및 부품(8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윈도우 8, 인텔 Ivy Bridge 등 출시로 컴퓨터 교체 수요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기대 단, 모바일 기기의 인기에 따른 컴퓨터 수요부진과 경쟁 심화로 전체 수요는 감소 전망
평판디스플레이 (8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적으로 가전분야 수요는 부진하겠으나 에너지 절약 추세로 친환경 LED 등 수요는 증가 기대 스마트폰, 테블릿PC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보이며 런던 올림픽 특수 등으로 수출여건 개선 기대
섬유 및 의류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FTA 발효로 선진국 진출 여건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수요 부진이 제약 요소 신흥시장에서의 중국 등과의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도 수출확대의 어려움으로 작용
무선통신기기 및 부품(8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산 스마트 기기의 시장 점유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제조사들의 현지생산 비율 확대로 수출 물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
선박류 (7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선박금융을 통한 신규 발주가 정상화되지 않고, 주문 취소 사례도 발생 전체적으로 시장 회복 속도가 느리고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도 격화되는 상황



(10% 이상 증가)



(5~10% 증가)



(0~4% 증가)



(0~10% 감소)



(10% 이상 감소)

자료원 : KOTRA 해외무역관(바이어, 주재상사 등 1,987개 정보원 의견 종합)

□ (수입)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지속으로 수입증가율 둔화 불가피

- 에너지원 수입 비중이 높은 중동(13.8%), FTA 발효로 국내 수입 여건이 개선된 북미(12.9%) 지역 증가 예상
- 경기부진으로 자본재 수입이 많은 일본(△1.1%), 자원수입 비중이 높은 아시아(△2.8%), 중남미(△2.9%) 등에서 수입 감소 전망
- * 수출용 수입증가율 : '11년 1~5월) 22.9% → '12년 1~5월) 1.8%

지역	2011년				2012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비중
총계	2,582	2,661	5,244	23.3	2,667	3.3	2,791	4.9	5,458	4.1	100
중국권	518	516	1,034	18.6	490	△5.4	541	4.8	1,013	△2.1	18.6
아시아	442	464	907	25.2	429	△3.0	451	△2.8	891	△1.7	16.3
유럽	259	274	533	19.8	290	11.9	296	8.0	549	2.9	10.1
북미	254	258	512	14.5	266	4.7	291	12.9	538	5.0	9.8
일본	342	341	683	6.3	335	△2.2	337	△1.1	717	5.0	13.1
중동	575	624	1,200	47.2	669	16.3	692	10.8	1,365	13.8	25.0
중남미	102	100	202	37.2	99	△2.8	97	△2.9	201	△0.5	3.7
아프리카	31	21	52	10.2	30	△3.3	20	△3.6	59	14.1	1.1
CIS	58	63	121	8.3	59	1.2	66	4.7	125	2.6	2.3

자료원 : KOTRA 해외무역관(바이어, 주재상사 등 1,987개 정보원 의견 종합)

<주요 품목별 2012년 하반기 수입 전망 기상도>

품목명 (MTI코드)	전망	2012년 하반기 전망 (2011년 하반기 대비 증가율)
원유 및 가스 (131, 134)		▪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도입단가 하락으로 상반기 대비 수입증가율 둔화 전망
반도체 및 장비 (831, 732)		▪ 국내 모바일기기, 스마트 가전기기 확대, 자동차용 반도체 수요 지속으로 소폭 증가 예상
석유제품 (133)		▪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요 둔화 전망
철광석 (112)		▪ 철강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에 따른 수요 감소로 인해서 철광석 수요 현상 유지 전망
철강관 (613)		▪ 국내 수요 둔화로 전체적인 수입 감소 예상

- (10% 이상 증가)
- (5~10% 증가)
- (0~4% 증가)
- (0~10% 감소)
- (10% 이상 감소)

자료원 : KOTRA 해외무역관(바이어, 주재상사 등 1,987개 정보원 의견 종합)

II.

지역별 하반기 수출 전망

가. 중국권 [5.1% 증가] * 중국, 홍콩, 대만

- ▶ 중국은 하반기부터 투자, 소비 등이 개선되면서 8% 초반의 성장 달성 기대
- ▶ 주요 국제기구 및 투자은행들은 '12년 중국경제 성장률을 8.0~8.3%로 전망
 - 성장률 전망치 : IMF 8.0%, 시티은행 8.1%, 세계은행 8.2%, UN 8.3%

□ (중국) 상반기보다 하반기 수출 여건이 양호할 전망

- 중국 당국의 정책 대응으로 하반기 경제여건 개선 기대
 - 경제 경착륙 방지를 위해 중국정부의 선제적 경제 대응과 꾸준한 산업 구조조정으로 불확실성 완화 예상
 - * '12년 상반기 기준율(2회) 및 금리(1회) 인하
 - * 철도, 환경, IT 등 SOC 투자 조기집행 추진(5월 23일, 원자바오)
 - * 에너지절감제품(가전, 조명, 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 지급(363억위안, 약 57억 달러)

□ (중국) '12년 對중국 수출 부진의 주요 원인

- 중국의 수출증가율 둔화
 - '12년 1~5월 동안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8.7%로 전년 동기 25.5%에 비해 크게 위축, 최대 수출국인 對EU 수출이 0.8% 감소
 - * 중국의 지역별 수출비중('11년, %) : EU(18.8), 美(17.1), 홍콩(14.1), 日(7.8)
 - * 다만 '12년 5월 중국의 교역규모는 전년 동월 대비 14.1% 증가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수출입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도 상존
 - 가공무역 중심의 한중 교역구조 특성상 중국의 수출 둔화는 한국의 對중국 수출 둔화에 직접적 영향 초래
 - * 對중국 수출품목별로 볼 때 원부자재 수출이 전체의 약 90% 수준
 - * 무역형태별로 볼 때 한국의 對중국 수출품 중 약 51%는 가공무역용 소재
- 중국 내수시장 성장세 하락
 - 상반기(1~5월) 동안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증가율과 소비재 판매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큰 폭 하락
 - * 중국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전년 동기대비 20.1%로 역대 최저수준 기록
 - * 소비재 판매 증가율은 14.5%에 그치며 전년 동기 17.1% 대비 부진

○ 對중국 부품 소재 수출 둔화

- 중국 성장둔화와 우리 진출기업의 부품 현지조달 증가 등으로 對중국 부품소재 수출 둔화, 전체 수출에서 부품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전체 수출 증가율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큼

* '11년 기준 對중국 총수출 중 부품소재 수출비중은 66% 수준

* 對중국 수출 증가율(%) : '10년) 34.8 → '11년) 14.8 → '12년 1~5월) △1.3

* 對중국 부품소재 수출증가율(%) : '10년) 35.6 → '11년) 6.0 → '12년) △6.6

□ (중국) 고도화되는 소비시장을 공략하는 진출 노력 필요

○ SNS 마케팅 활용

-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기업증가('12년 1분기 기준 신랑(新浪) 웨이보 가입자 3.2억명, QQ 웨이보 가입자 4.3억명)

- 웨이보는 소비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가능하고 다른 홍보 수단에 비해 비용이 저렴해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으로 급부상

* 델(Dell), 삼성 등 글로벌 기업들은 용도별(판촉정보제공, A/S창구)로 다수의 웨이보를 운영하며 고객 접점으로 적극 활용

* 지멘스는 '11년 웨이보를 통해 제기된 고객 불만에 즉각대응을 함으로써 기업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

○ 온라인 시장 공략

- 온라인 시장이 고속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온라인 쇼핑 품목 다변화, 내륙지역 소비 활성화 등이 진행 중

- '11년 중국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약 7,735억 위안(약 1,216억 달러, '11년 대비 67.8% 성장), 향후 수년간 매년 20% 이상 성장 전망

* 중국 전자상거래는 연해지역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나 최근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등 내륙지역으로 확대

* 취급품목도 기존 의류잡화, 가전, 화장품 등에서 약품, 신선식품 등으로 다변화

○ 친환경·웰빙 붐 트렌드 포착

- 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관심 제고와 정부의 적극적 정책지원으로 친환경·웰빙 제품 및 서비스가 각광

* 중국 정부의 에너지 절감제품 보급 프로젝트 실시 이후 중국 내 친환경 냉매를 사용한 에어컨, 절전형 정수기, LED 조명 등의 보급이 확대

* 야금, 전자재, 석유화학, 전력 등 공업영역에 에너지절약 관련 구체적인 목표가 부과되면서 에너지절약 서비스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

○ 대기업 농업 진출 확대

- 급격한 도시화로 식품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업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려는 중국 대기업들이 증가
- 중국 대기업들은 든든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소규모 개인농 중심의 농업에서 대규모 기업농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 시도
 - * 세계 2위 PC업체 레노버, 세계 태양광 5대기업 잉리솔라, 거대 부동산기업 완다그룹 등이 농업에 진출

□ (대만) 수출 감소에 따른 수입수요 부진

- 대만은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 경기하강으로 수출입이 모두 예년보다 감소하는 추세
 - '12년 1~5월 동안 수출과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5%, 5.3% 감소
 - * '12년 1~5월 동안 우리나라의 對대만수출은 '11년 동기대비 21.9% 감소
- 高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감형 제품 수요 증가, 녹색 건축자재 의무사용률 확대, 한류 확산 등을 다각적으로 활용 필요
 - LED 조명, 친환경 건축자재 등과 한국산 식품, 화장품, 패션, 생활가전 등 소비재 진출 노력 필요

□ (홍콩) 홍콩을 통한 재수출 감소 가능성 증가

- 우리의 對홍콩 수출 중 약 60%가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구조로 중국경제 둔화가 지속될 경우 우리 수출 타격 불가피
 - 높은 물가수준으로 소비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도 향후 우리수출에 부정적인 영향 초래 우려
 - * 위안화 평가절상으로 중국에 주로 의존하는 생필품 가격이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도 여전히 높은 수준
 - * 소비자물가상승률(%) : '10년) 1.7 → '11년) 5.3 → '12년 1분기) 3.8
 - * 주택가격상승률(%) : '11년) 11 → '12년 1분기) 5

나. 아시아 [8.5% 증가]

- ▶ (동남아) 주요국의 내수시장 성장 등으로 세계경제 둔화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
- ▶ (서남아) 중심국인 인도가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부채, 외국인 투자 감소 등으로 전반적인 성장세 둔화
 - 인도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 7%대 → 6%대
- ▶ (대양주)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중국, 인도 등 주요 수출국의 경기 둔화로 호주경제가 당초 4%대에서 3%대로 성장률 하락 예상

□ (동남아) 경제성장 및 내수시장 확대에 수출 증가세 유지

- 선진국 경기 부진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확대 등에 따른 소비 확대에 내수시장 활황 지속
 - 자동차, 가전 등 내구성소비재와 스마트폰 등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유통시장도 급성장세
 - * (인니) 자동차 판매 10% 이상, 이동통신 15% 이상 등 시장 확대 예상
 - * (말련) 1인당 GDP 1만달러 시대 진입, 자동차, 평면 TV, 스마트폰, 친환경 제품 등 고급제품 수요 증가
 - * (필리핀) 해외 근로자들의 본국 송금액 확대에 민간소비 활성화¹⁾
 - * (태국)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중산층 이상 이용 쇼핑물 신설

□ (동남아) 정부 주도의 인프라 확대 시장 진출 노력 필요

- 경제발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인프라 확충 계획, 우리기업의 참가 기회 증가
 - (인도네시아) 14개 주요 도시의 공항 개보수, 철도, 도로 등 진행
 - (싱가포르) 관광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MICE 관련 건설 프로젝트는 향후 몇 년간 지속적인 증가 전망
 - (필리핀) '12년 5월 기준 22개의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프로젝트를 추진, 관련 기자재 수요 증가 예상

1) '11년 필리핀 송금액은 201억 달러로 필리핀 GDP의 11%, 수출액의 42.0% 수준이고, '12년 1분기 본국 송금액은 전년동기 보다 5.4% 증가

□ (서남아) 대내외 악재로 성장 탄력 둔화

- 인플레이션, 현지화 평가절하, 외국인투자 감소 등으로 전체적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 수입수요 둔화로 '12년 5월까지 우리나라의 對서남아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1.2% 감소
 - * 인도 루피화 하락세 : '11년말 54.30 → '12년 5월말 56.28('12년 연초대비 21%↓)
 - * 지난 4월 S&P는 인도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재정적자, 정부부채 심화,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 제기
 - * 인도 무역적자는 루피화 가치하락에도 오히려 확대돼 2011/2012 회계연도에는 사상 최대인 1,849억 달러 기록
 - * 한국의 對서남아 주요 국가 수출증가율('12년 1~5월, %) : 인도 △3.4, 파키스탄 △3.6
- 그러나 서남아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라 내수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지속적인 진출노력 경주 필요
 - (인도) 중산층²⁾ 인구 '10년 1.6억 명 → '15년 2.7억 명 → '25년 5.5억 명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방글라데시) 대도시를 중심으로 냉장고, 고급 TV 등 내구소비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 * 인도 자동차 시장 전망(Ernest & Young) : '16년 세계 7위 → '20년 세계 3위

□ (대양주) 경기 둔화에도 한국산 제품 수요는 확대 기대

- (호주)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현지화 강세, 브랜드 인지도 제고로 석유제품, 자동차 등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수요 증가
 - * 호주 환율 추이(A\$1=US\$) : '10년 3월) 0.91 → '11년 2월) 1.0163 → '11년 7월) 1.0954 → '11년 12월) 1.0156 → '12년 1월) 1.0637 → '12년 2월) 1.0816 → '12년 3월) 1.0402 → '12년 4월) 1.0453 → '12년 5월) 0.9727
- (뉴질랜드) 일본産 제품 경쟁력 하락으로 자동차, 스마트폰, TV 등 국내 대기업의 진출 가능성 확대
 - * '12년 상반기 수출증가율(1~5월) : 호주 26.3%, 뉴질랜드 28.5%

2) '10년 기준으로 연소득 US\$7,555~37,777에 해당하는 인구를 중산층으로 정의

다. 유럽 [6.6% 감소]

- ▶ 재정위기가 그리스뿐만 아니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까지 확산 될 수 있다는 우려와 긴축재정으로 경제침체 지속 예상
- ▶ 재정위기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독일과 다른 국가와의 이견으로 하반기에도 불안감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실물경기 침체로 수입시장 위축 하반기에도 지속

- 재정위기 확산 우려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수입 수요 부진, 유로존 교역 둔화 등의 각종 악재 상존
 - 프랑스 대선과 그리스 총선 등으로 드러난 바와 같이 유로존의 정치적 리스크와 회원국 간 입장차이로 하반기에도 불안감 지속 불가피

□ 한-EU FTA 효과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 감소세

- '11년 7월 한-EU FTA는 발효 이후 활용도는 높아지고는 있으나 유로존 위기 심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수출증가에는 한계
 - 유럽지역 경기둔화여파로 선박, 반도체, 철강 등 주력 품목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
 - * 對유럽 수출감소품목('12년 1~5월, %) : 선박 △46.0, 반도체 △42.4, 무선통신 △26.8 철강 △21.6, LCD △6.4
 - * 對유럽 수출증가품목('12년 1~5월, %) : 자동차 8.7, 자동차부품 18.7, 석유제품 34.2, 합성수지 15.7, 건설광산기계 7.6
- 對유럽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FTA의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뿐만 아니라 브랜드 인지도 및 선호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 불황에 따른 실속형 소비 트렌드 확대는 한국제품에 기회

- 품질 대비 가격 요소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가격대비 품질이 우수한 한국산 제품들의 시장 확대 유리하게 작용
 - (독일) 한국산 자동차 1분기 수입차 시장 1위, 판매율 전년 대비 33.5% 증가
 - (프랑스) 한국 자동차, 태블릿PC, 석유화학 등 수요증가
 - (영국) 한국산 소형 저가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확대

라. 북미 [12.0% 증가]

- ▶ 최근 미국경제는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고용시장 개선흐름이 둔화되는 등 경기 회복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
- ▶ 그러나 미국경제는 하반기에도 2% 내외의 완만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유럽 재정위기, 신흥국 경기둔화, 재정지출 감소 및 고용시장 불안 등은 불안요인

□ 한미 FTA 효과 하반기에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

- 상반기 발효된 한미 FTA 효과가 하반기에 들어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
 - 바이어들의 한미 FTA 인지도 제고 및 국내업체들의 한미 FTA 인지도 증가로 한미 FTA 효과 확대 예상
 - 특히, 섬유류, 자동차부품, 생활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한미 FTA 관세인하 효과를 활용한 바이어들의 수요 확대

※ 한미 FTA 효과 현장사례

- ▶ 트렉스타(아웃도어 신발), 한미 FTA에 따른 관세(2.7~10.0%) 즉시철폐로 중국 생산물량 국내이전 및 미국 바이어 주문증가로 생산직 직원채용 확대
- ▶ 미국 맨하탄 소재 액세서리 업체, 한미 FTA에 따른 11.0% 관세철폐로 기존 중국 거래선을 한국으로 변경하기 위해 방한 및 공장실사 진행(2012.5월)

□ 주력 수출상품의 미국시장 지배력 강화

- (자동차) '12년 1~5월 동안 미국 신차판매 대수는 전년동기대비 13.4% 증가하는 등 미국 자동차 판매 호조세 지속
 - 국제유가 하락으로 미국 가솔린 가격상승이 주춤한 것도 하반기 자동차 판매에 긍정적으로 작용 기대
 - * 美 가솔린 판매가(\$/Gallon) 추이 : 3.669(5.28일) → 3.612(6.4일) → 3.572(6.11일)
 - 5월 기준 현대차는 월간 판매량 기준 사상 최대치인 67,019대 판매, 기아차도 '11년 동월대비 판매량 18.7% 증가한 51,771대 판매

- (자동차부품) FTA 효과뿐만 아니라 국산차 판매호조 및 현지생산 물량 확대, AS용 부품 교체수요 확대로 수출호조세 지속 전망
 - * '11년 기준, 미국 내 평균 자동차 연령은 11.1년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
- (기계류) 미국 제조업 경기회복세에 따라 기계류 교체를 미뤘었던 현지업체들의 구매 실행 및 국산제품 경쟁력 제고로 판매 호조

□ 단, 해외생산 확대는 대미 수출확대의 제약요인

- 미국 내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스마트폰, 자동차 등 대미 주력 수출제품의 해외생산 확대추세 강화
 - 국내 스마트폰 업체의 해외생산 비중은 '10년 3.5%에서 '11년 3분기 기준 65.3%로 급격히 확대
 - 현대·기아차도 미국 현지생산 물량을 확대, 기아차는 '11년 27만대에 달했던 현지생산 물량을 올해는 35.5만대까지 확대할 계획

□ 대외경제 여건에 따라 수입의 급격한 위축 가능성도 존재

- 유럽 재정위기 심화, 중국·인도 등 신흥시장 성장세 둔화 등 대외경제여건이 악화될 경우 미국 경제도 타격 불가피
 - 실제 유로 존 위기와 신흥시장 성장세 둔화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미국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
 - 대외여건이 더욱 악화되어 미국 경기회복세가 크게 둔화될 경우, 투자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미국 수입수요 감소 우려

※ 유로 존 재정위기로 인한 미국 산업피해 사례

- ▶ (Ford) 유럽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입뿐만 아니라, 자동차 정비도 꺼리고 있어 부품 판매도 부진을 보이고 있음.
- ▶ (Staples) 컴퓨터 등을 중심으로 유럽지역 사무용품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해외 고용인력 수백명 감축
- ▶ (Goodyear) 유럽지역 타이어매출 감소에 따라 최근 생산량 감축

마. 일본 [1.7% 증가]

- ▶ '11년 일본경제는 3월 발생한 대지진 피해로 인해 2011년 실질 GDP가 0.7% 감소하고, '80년 이후 31년만에 처음으로 수출이 줄어드는 상황 발생
- ▶ 다만, 2012년 지진복구 효과로 경제가 회복세로 전환, 1분기 1% 성장, 연간 2% 전후의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전력부족, 엔고 등은 여전히 일본 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

□ 하반기 對일본 수출 보험 요인

- '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피해에 따른 대체수요 효과 감소
 - 한국의 작년도 對일본 수출은 전년대비 무려 40.9%가 증가한 397억달러로 사상 최대치 기록
 - * '12년 수출은 이전대비 양호한 상황이지만 '11년 기저효과로 보험세 전망
 - * 對日 수출추이(억 달러) : '08년) 283 → '09년) 218 → '10년) 282 → '11년) 397

□ 전력난 및 엔화 강세 수혜품목의 수출 증가 기대

-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대체 자원 에너지 수입 증가
 - 화력발전소 활용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연료인 석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
 - * 석유제품 對일본 수출액(억 달러) : '10년) 36 → '11년) 86 → '12년 1~5월) 37
- 엔화가치 강세와 원저 환율 효과
 - '10년 이후 엔화가치 상승으로 현재 100엔 = 1,450원 이상의 환율구조 유지
 - * 일본 기업들은 엔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에서 부품조달을 희망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특히 한국 수입을 늘리는 추세 지속 전망

□ 일본시장 에너지 부족에 따른 트렌드 활용

- '12년 하반기에도 전력 부족이 지속되어 일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 '11년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차례로 정지, '12년 5월 기준 전국 54개 원자로가 모두 가동중단 상태
- 에너지 절약, 절전을 촉구하는 분위기로 인해 각종 에너지 절감형 제품들이 각광
 - 절전기능 뿐만 아니라 소비자 취향과 디자인 측면까지 고려 필요

바. 중동* [16.6% 증가] * 북아프리카 국가 포함

- ▶ 상반기까지 지속된 고유가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주요 산유국들은 예상보다 높은 성장 전망
- ▶ 반면, 민주화사태에 따른 불안과 이란 핵문제는 중동수출 호조 지속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高유가로 인한 주요 산유국의 경제상황 호조

- 5월까지 배럴당 100달러가 넘는 고유가 지속으로 주요 산유국의 재정여력이 크게 확대
 - 사우디, UAE 등은 산업화, 각종 기자재, 내수 생산품 우선 구매 등으로 수입수요가 큰 폭으로 확대
 - 특히 석유화학 산업, 제철산업 등에 많은 투자와 정부 발주 프로젝트를 겨냥한 플랜트 기자재 사업도 성장 지속
- * '12년~'16년 간 GCC³⁾ 국가에서 US\$2,860억 규모의 프로젝트 진행 예정

□ 소득 증대에 따른 소비시장 팽창

- 경기 활성화에 따른 소비시장 확대
 - '11년 사우디 공무원 임금 인상과 보너스 지급 등에 따른 소비자들의 구매력 상승, 전통적으로 소비 성향이 강해 소비 증대 예상

□ 한국산 제품 인지도 상승 및 시장점유율 확대

- 한국산 제품, 프리미엄 브랜드로 완벽히 자리 매김
 - 공산품뿐만 아니라 프로젝트⁴⁾ 수주 등 중동지역의 한국기업 선전으로 우리 제품은 중동 소비자들에게 프리미엄 제품으로 각인
- * (사우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1위, LG전자의 가정용 에어컨 시장점유율 1위
- 이로 인하여 각종 기자재, 산업용 제품에서도 한국산에 대한 바이어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져, 우리 제품 수출에 호재로 작용

3)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으로 걸프만 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의 줄임 말

4) 2011년 기준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발주 프로젝트의 23%를 한국이 수주

사. 중남미 [2.1% 증가]

- ▶ 경제에서 천연자원 비중이 높은 중남미국가들은 유럽, 중국 등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둔화로 성장률이 하락세
- ▶ 중남미 국가 중 경제규모가 가장 큰 브라질이 2%대 성장으로 경기가 둔화 될 것이며 멕시코도 3%대 성장에 그칠 전망

□ 수입수요 둔화로 하반기 수출 소폭 증가

- 주요시장인 브라질, 멕시코 등의 경기 하락으로 수입 여건 악화
 - '12년 1/4분기 브라질은 前분기 대비 수출이 17%, 수입액은 11% 감소하는 등 세계경제 침체의 부작용 발생
 -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달러화 가치가 상승해 멕시코, 브라질 등에서는 바이어들이 당장 수입을 유보하는 현상 발생
 - * 중남미 주요국 수출추이(1~5월, %) : 브라질 Δ 7.3, 멕시코 Δ 18.1, 아르헨티나 Δ 0.9
 - * 멕시코 폐소화 6월 초 연 최저점 대비 약 14% 평가절하
 - * 브라질 헤알화 6월 중순 연 최저점 대비 약 22% 평가절하

□ 수입규제 강화에 따른 우리기업의 피해 우려

- 자국 산업 육성과 중국산 저가 수입품의 범람을 막기 위한 수입 규제 강화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에도 피해 발생
 - (브라질) 수입품 통관절차 강화, 브라질産 부품 의무사용비율 상향 조정 등 규제 강화
 - (아르헨티나) '12년 2월부터 사전수입신고제 시행, 수입관세 인상 추진 중(관세평균 현재 22% → 확정시 35%)

□ 인프라 확충 및 FTA 체결국가 진출 확대

- 열악한 인프라 개선, 新성장산업, 국제행사 준비 본격화에 따른 각종 건설장비 분야 등 진출 모색
 - 멕시코 풍력발전 사업, 브라질 월드컵 및 올림픽 특수 등
- 이미 FTA가 타결된 칠레, 페루, 콜롬비아('13년 발효 예정) 등 국가의 진출 확대 필요
 - 이들 국가들은 현지 산업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FTA를 통한 공산품 수출 확대 기대
 - * FTA 발효(체결) 국가의 수출 추이(1~5월, %) : 칠레 7.4, 페루 8.8, 콜롬비아 2.3

아. 아프리카* [25.9% 감소]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 ▶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남아공, 케냐 등 주요 국가들의 경제성장세 둔화
- ▶ 수단은 분리 독립 후유증으로 인해서 전년대비 GDP가 10% 이상 감소 전망

□ 선진국 경기둔화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로 수입수요 약화

- 자원, 광물 등의 수출 감소로 성장 동력이 약화되면서 실업률, 물가상승, 환율 변동성 등 각종 위험 요소 대두
 - 대표적으로 남아공의 란드화, 케냐 실링화 등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입품의 가격인상 효과로 수입수요 감소
- * 케냐 실링화 변동성 : '11년 1월 80.2 → '11년 10월 107 → '12년 6월 85

□ 전체 수출금액은 줄어들었지만 실질 수출 증가세

- '12년 5월까지 對아프리카 수출은 41.3% 감소했지만, 선박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의 수출은 오히려 23% 증가
 - 선박수출은 라이베리아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 선적을 둔 편의국적선 수출
- * '12년 1~5월 수출증가품목(MPI 3, %) : 건설광산기계 68.8, 석유제품 37.8, 자동차 23.8
- 다만, 아프리카에서는 가격이 가장 중요한 구매 요건이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우리 제품 수요가 큰 폭의 증가하기는 어려운 상황

□ 인프라 확대 및 정부투자 등의 기회를 적극 활용 필요

- (남아공) 신경제성장정책(NGP, New Growth Path) 실시를 통해 향후 10년간 500만 일자리 창출 계획
 - 현재 남아공은 외채의 21%를 사회 인프라 건설 등 공공분야에 투자
- (케냐) 국가경제개발계획 '비전 2030'의 일환으로 각종 대형 프로젝트 추진 예정
 - 라무항, 타투 신도시 개발 등 외에도 나이로비 수도 확장, 주요 도로 개발, 상수도, 통신 인프라 구축

자. CIS [6.7% 증가]

- ▶ 원유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는 유가 하락으로 2분기부터 성장세 위축
- ▶ 다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은 6% 이상의 높은 성장세 기대

□ 상반기 대비 하반기 수출 둔화 전망

- 국제유가 하락세로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달러화 대비 하락세, 이로 인해 상반기 대비 수입 여건 악화 예상
 - 유가가 추가로 하락할 경우 달러대비 루블화 가치는 달러당 40 루블 이상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
 - * 러시아 우랄産 원유가격 : 3월 평균 US\$122.6 → 6월 중순 \$97.61(약 20% ↓)
 - * 달러당 루블 환율: 3월 평균 29.37 → 6월 32.79 기록(약 14% ↓)

□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한국산 제품 수요 지속

- 경제 안정으로 그동안 중산층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이들이 시장 주도 소비층으로 부상
 - 러시아의 경우 연 소득 2만달러의 인구가 전체의 29%, 연 소득 3만달러의 인구는 전체인구의 18% 차지
 - * 이들 중산층이 가격 이외에 브랜드, 품질을 꼼꼼히 따지는 특성
-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향상으로 수요가 급증
 - 인지도가 높아진 한국산 가전, 자동차, IT 기기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향상
 - * 카자흐스탄 국민 55%가 전자제품 구매시 한국산 제품 선호

□ 수입규제 강화 및 무역인프라 미비는 수출확대의 장애요인

- 수입규제 강화와 제조업 육성 정책, 각종 무역인프라 부족은 지속적인 교역 확대의 장애물로 작용
 - (러시아) 수입산 차량 사용자에게 사용세 부가 법안 상정, 법안 가결시 승용차 1,500달러, 화물차 13,000달러 이상 세금 부과
 - (우즈베키스탄) 외환통제, 비효율적 행정시스템, 낙후된 은행시스템 등 수출 확대에 제약(수입 및 송금 등을 위한 환전에 1년 소요)
 - (카자흐스탄) 물류, 통관 시스템 미비로 인해 수출 확대에 부정적 작용

Ⅲ.

지역별 하반기 수입 전망

가. 중국권 [4.8% 증가] * 중국, 홍콩, 대만

□ (중국) 하반기 對중국 수입 소폭 반등 예상

- '12년 1~5월 對중국 수입액은 340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7% 감소
 - MTI 3단위 기준 5대 수입 품목은 컴퓨터, 반도체, 철강관, 평판 디스플레이, 정전(Static Electric)기기 순
 - 5대 품목 중 컴퓨터(△6.8%), 반도체(△15.8), 철강관(△12.9%) 수입이 감소, 평판디스플레이(0.2%) 수입은 소폭 증가, 정전기(37.5%) 수입만 큰 폭 증가
- 상반기 중국생산 및 한국경기 둔화로 對중국 수입 감소
 - (PMI) 중국국가통계국 및 중국물류구매연합회가 6월 1일 발표한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50.4%)가 전월보다 2.9%p 하락
 - 각 세부 PMI 지수가 모두 하락한 가운데 신규주문지수와 원자재재고지수, 공급상 배송시간 지수 등은 50 아래로 떨어져 경기부진을 그대로 반영

< 중국 제조업 PMI 분류별 지수 >

시기	PMI	PMI				
		생산	신규주문	원자재 재고	종업원	공급상배송시간
2012.1	50.5	53.6	50.4	49.7	47.1	49.7
2	51.0	53.8	51.0	48.8	49.5	50.3
3	53.1	55.2	55.1	49.5	51.0	48.9
4	53.3	57.2	54.5	48.5	51.0	49.6
5	50.4	52.9	49.8	45.1	50.4	49.0

자료원 : 중국국가통계국

-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 영향으로 하반기 수입여건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워 소폭 증가 전망
 - 한국 건설경기 부진 지속으로 철강 등의 수입은 당분간 감소세를 지속 예상

□ (대만) 對대만 주요 수입 품목은 IT제품, 석유화학, 철강제품 등

- IT제품의 경우, 대만 IC 디자인 업체의 경쟁력 제고로 우리 가전 업체에 대한 납품이 증가
 - 하반기 대만산 IT제품 수입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윈도우 8 출시로 컴퓨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석유화학, 철강제품의 경우, 공급과잉 문제가 심각하여 양국간 수출입 모두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對대만 수입증감률은 수출증감률에 비해 변동 폭이 작은 상황
 - 對대만 수출증감율(%) : '09년) Δ 17.1% \rightarrow '10년 56.1 \rightarrow '11년) 22.8 \rightarrow '12년 1~5월) Δ 21.9
 - 對대만 수입증감율(%) : '09년 Δ 7.4 \rightarrow '10년) 38.5 \rightarrow '11년)7.7 \rightarrow '12년 1~5월) Δ 4.2

나. 아시아 [2.8% 감소]

□ (동남아) 에너지 및 원부자재 분야의 수입 둔화 전망

- 한국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천연가스, 천연고무, 유연탄 등 원자재 수입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
 - 또한 현지 수급 불균형에 따른 안정적 물량 확보의 어려움으로 수입 규모가 늘어나는데 한계 요인으로 작용
 - * 對ASEAN 수입증가율(전년동기 대비, %) : '10년 20.5 → '11년) 20.5 → '12년 1~5월) 0.1
 - * 對ASEAN 수입 감소 품목(%) : 반도체 △20.7, 원유 △38.7, 임부산물 △17.4, 컴퓨터 △11.6, 동광 △43.1

□ (서남아) 국내 경기둔화에 따른 원부자재 수입 감소

- 우리나라는 인도 등 서남아에서 수출을 위해 필요한 원부자재 등 품목을 대부분 수입
 - 서남아 국가 중 수입량이 가장 큰 인도의 경우 '12년 1~5월 동안 전년동기대비 12.1% 감소
 - * 수출용 수입품목 비중('11년 기준, %) : 인도 47.2, 파키스탄41.1, 방글라데시 21.3
 - * 對인도 수입 감소품목(1~5월, %) : 석유제품 △14.3, 고철류 △27.6, 알루미늄 △25.2, 철강 △51.9, 아연제품 △37.8

□ (대양주) 對한국 자원 수출 감소

- 수요부진과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인해 호주산 비중이 높은 철광석, 유연탄 등 수입 둔화 예상
 - '09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對호주 수입이 18% 감소, '12년 1~5월에는 전년동기대비 6.4% 감소
 - 철광석, 원유 등 對한국 수출 비중이 높은 3대 자원 중 유연탄을 제외한 나머지 2품목은 이미 상반기에 증가율이 크게 둔화
 - * 주요 자원의 對한국 수출 증가율(1~5월, %) : 원유 △40.2, 철광석 0.4

다. 유럽 [8.0% 증가]

□ 한-EU FTA에 따른 전반적인 수입 증가 유지

- FTA에 따른 공산품, 농산품 등의 수입 증가로 1~5월 동안 對EU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9.3% 증가
 - 자동차의 경우 '11년 34%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12년 5월까지 르노 삼성 등 판매부진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2.1% 감소, 자동차 부품도 7.3% 감소('11년 증가율 22.8%)
 - * 유럽 주요 국가별 수입증가율('12년 1~5월, %) : 독일 2.6, 영국 100.7, 네덜란드 3.8, 이탈리아 10.8
 - * 프랑스는 항공기 수입이 줄어 5월까지 수입 16.3% 감소
 - * 주요품목 수입증가율(1~5월, MTI 3단위, %) : 반도체제조용 장비 15.2, 농약 및 의약품 8.3, 기계요소 20.0, 석유제품 71.3, 육류 5.8
 - * 對네덜란드 반도체 제조용 장비 1~5월 수입증가율 : 28.8%
- 단, 수입 1위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유럽산 비중이 높은 기계류 등 자본재 수입 둔화로 하반기 수입 증가율은 낮아질 전망
 - 유럽산 명품 소비재인 가방, 의류 등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금액 비중 낮은 상황
 - * 명품류 수입액 및 비중(1~5월, MTI 3단위) : 가방 2.4억 달러(전체 EU수입의 1.2%) 19.9%↑, 의류 1.6억 달러(전체 EU 수입의 0.8%) 15.2%↑

□ 한-EU FTA에 따른 원유 수입 확대 예상

- 북해산 원유수입 증가로 공산품 수입부진 상쇄
 - 한-EU FTA 이전까지 사실상 전무했던 북해산 원유의 對한국 수입이 FTA 이후 3% 관세 철폐에 힘입어 크게 증가
 - * 영국산 북해 원유의 대한수출(억 달러) : '11년) 3.4 → '12년 1~5월) 12.3
 - * 총 수입 원유에서 영국산 브렌트유 비중(%) : '11년) 0.33 → '12년 5월) 2.6
- 특히 한국은 중동산 원유수입 의존도가 87.2%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란 리스크 등으로 하반기 유럽산 원유의 수입 증가 전망
 - EU 가입국은 아니지만 노르웨이산 원유의 對한국 수출도 '11년 2.5억 달러에서 '12년 1~5월 동안 10.9억 달러로 크게 증가

라. 북미 [12.9% 증가]

□ 한미 FTA에 따른 미국산 제품 수입 증가

- 한미 FTA로 관세가 철폐된 식물성 물질, 곡실류 등 미국 주력 수출제품들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되면서 하반기 수입 증가전망
 - 식물성 물질 수입의 대부분(92%)을 차지하는 사료의 경우, 평균 5%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수입수요 증가 예상
 - * 대표적으로 곡실류 수입의 39%와 21%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오렌지, 밀의 수입 증가 전망
 - *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증가율(1~5월, MTI 3, %) : 곡실류 △28, 육류 △10.5
- 국내 축산업계의 미국산 사료 의존도가 높은데다, FTA에 따른 관세철폐로 미국산 사료 수입수요 지속 증가 예상

□ 광우병 파동 진정으로 육류 등 축산물 수입 확대 예상

- 상반기 광우병 발생 등으로 미국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이 감소했으나, 하반기 광우병 파동이 차츰 진정되면서 수입도 회복 예상
 - 미국육류수출입협회에 따르면, '11년 우리나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대비 35.9%, 돼지고기 수입량은 99.2% 증가

□ 수출경기 둔화로 원부자재 및 자본재 수입은 전반적으로 감소

-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 등의 경기 둔화로 유연탄, 금속광물, 석유화학 제품 등 원부자재 수입수요가 부진을 보일 전망
 - 경기부진에 따른 기업들의 설비투자 심리 위축으로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자본재 수입 수요도 부진 예상
 - * 전년동기 대비 수입 증가율 감소 품목('12년 1~5월, %) : 석탄 △18.3,
- 단, 국내 모바일 기기 및 스마트 가전시장 확대로 반도체 및 제조장비, 항공기 부품, 자동차 등은 수입수요 증가
 - '12년 1~5월 동안 반도체 수입액은 18.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4.2%, 반도체 제조장비도 57.9% 급증한 16.5억달러 기록
 - * 對미국 수입증가 품목('12년 1~5월, %) : 항공기 및 부품 40.3, 자동차 53.8

마. 일본 [1.1% 감소]

□ 수출 둔화에 따른 각종 자본재 및 부품류 수입수요 감소

- 對일본 수입에서 수출용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11년 기준 전체수입 683억달러 중 308억달러로 약 45.1% 점유
 - '12년 5월까지 對일본 수입금액은 276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 감소하고 있는 상황
 - * '12년 對일본 수입 감소 품목(%) : 철강판 △19.9, 반도체 △6.3, 플라스틱 제품 △19.8, 자동차부품 △22.5, 정밀화학원료 △11.8

□ 對일본 무역적자 규모 점차 축소 예상

- 자본재 및 핵심부품의 높은 일본 의존도로 그 동안 한국 수출이 증가하면 대일 무역적자가 증가하는 구조 정착
 - 그러나 '11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對일본 수출이 증가하고 일본산 자본재 및 부품 의존도가 개선되면서 무역적자가 감소
 - * 對일본 무역적자 추이(억 달러) : '07년) 298 → '08년) 327 → '09년) 276 → '10년 361 → '11년) 286 → '12년 1~5월) 116
 - * '11년 1~5월 간 對일무역적자액은 126억달러
- 특히 '11년 기준 전체 대일 무역적자 중에 부품소재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기존 60%대에서 약 80%로 상승
 - 부품소재적자는 '11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약 15억 달러 감소
 - 對일무역적자의 핵심이었던 부품소재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주요 부품소재 기업 투자유치 등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분석
 - 일본의 對한국 투자진출은 단일국가 기준 미국에 이은 두 번째이고, 특히 제조업 관련 투자가 많은 것이 특징
 - * 최근 엔고로 한국산 부품 수요 증가, 대한민국 투자 확대로 도레이, 아사히 카세이 등 일본 주요 부품소재 기업의 한국에서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부품소재 적자도 함께 줄어들 것으로 분석

바. 중동* [10.8% 증가] * 북아프리카 국가 포함

□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 수입 수요 지속

- '11년 기준 한국의 원유 수입액은 1,008억 달러, 천연가스 수입액은 238억 달러로 이 두 품목이 총 수입의 23.7% 차지
 - 이 중에서 중동 GCC⁵⁾ 국가에서만 수입한 원유가 681억 달러, 천연가스 102억 달러로 해당품목 전체 수입의 67.6%, 42.9%
- '12년 1~5월 동안 우리나라 전체 원유 수입은 467억 달러, 천연가스는 11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5.7%, 26.7% 증가
 - 이 중에서 GCC 국가에서 수입한 원유는 325억 달러, 천연가스는 5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22.8%, 47% 증가
- 따라서 하반기 국제유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체 에너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 할 때 對중동 수입은 10% 이상 증가 예상

□ 이란 제재 발효로 GCC 산유국 의존도 상승 예상

- 서방의 對이란 경제 제재로 7월부터 이란産 원유 수입이 불가능한 상황
 - '11년 기준 우리나라가 이란으로 부터 수입하는 원유는 93.5억 달러로 전체 원유 수입의 약 9.3% 수준
 - * 사우디아라비아 : '11년 기준 330억 달러(증가율 44.3%), '12년 1~5월까지 158억 달러(증가율 20.3%)로 현재 최대 원유 수입국
 - * 쿠웨이트 : '11년 기준 138억 달러(증가율 62.8%), '12년 1~5월까지 68억 달러(증가율 39.4%)
 - * 카타르 : '11년 기준 100억 달러(증가율 102.7%), '12년 1~5월까지 51억 달러(증가율 34.5%)
 - * 아랍에미리트 : '11년 기준 98억 달러(증가율 11.7%), '12년 1~5월까지 45억 달러(증가율 10.8%)

5)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으로 걸프만 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의 줄임 말

사. 중남미 [2.9% 감소]

□ 국내 수요 부진으로 중남미산 자원 광물 수입 감소세

- '12년 5월까지 수입액은 8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4% 감소
 - 중남미로부터 철광석, 동광, 동제품 등 주력 광물 자원의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크게 둔화되거나 감소
 - * 중남미 주요 광물자원 수입 증가율(%) : 철광석 '11년) 65.6 → '12년 1~5월) 8, 동광 '11년) 42.4 → '12년 1~5월) 4.4, 아연광 '11년) 38.2 → '12년 1~5월) △15.2
 - * 이로 인해 광물자원 수입 비중이 높은 칠레와 페루로부터의 수입이 1~5월까지 각각 5.9%, 26.8% 감소

□ 주요 국가의 수출 경쟁력 개선으로 소폭 하락 유지

- '12년 1/4분기 수출이 前분기 대비 17% 하락한 브라질은 수출확대를 위한 자금 대출 등 각종 방안을 마련
 - 동시에 현지화 평가절하로 브라질, 멕시코 수출업체들의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철강, 곡물 등 수입 증가 예상
 - * 중남미 전체의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5월까지 브라질 수입은 13.4%, 멕시코 수입도 8.7% 증가
 - * 對브라질 주요 품목 수입증가율(1~5월, %) : 철광석 8, 철강류 113, 기타농산물 91.9
 - * 對멕시코 주요 품목 수입증가율(1~5월, %) : 기타금속류 185, 아연광 29.7, 합금선철 및 고철 91.7

아. 아프리카 * [3.6% 감소]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 전체 수입 비중의 1%대로 수입 감소에도 영향력은 미미

- '12년 5월까지 對아프리카 수입은 25.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
 - 천연가스(15.6%), 석탄(29.0%), 원유(493.3%) 등 에너지 자원 수입이 증가한 반면, 동제품 28.8%, 금은 및 백금 51.6%, 알루미늄 60.4% 등 광물자원 수입은 감소

자. CIS [4.7% 증가]

□ (전체) 상반기 對CIS 수입은 1.2% 증가 예상

- '12년 5월 기준 CIS 주요 국가들의 수입액은 러시아 1.3%, 우즈베키스탄 216.5%, 우크라이나 29.1% 등 증가한 반면 카자흐스탄은 6% 감소

□ (러시아) 하반기 수입액 상반기 대비 보합세 전망

- (원유) 러시아산 원유의 경우 수입물량은 큰 변동이 없으나 국제유가, 특히 ESPO(동시베리아 송유관)산 러시아 원유가의 프리미엄 가격 변동에 따라 수입액의 증감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
 - 현재 국제유가가 하락세에 있어 하반기 원유 수입액은 상반기와 비슷하거나 다소 감소 할 것으로 예상
 - * 러시아産 원유 수입 추이(증가율, %) : '10년) 39.7억 달러(125↑) → '11년) 36.6억 달러(△7.8) → '12년 1~5월) 14.1억 달러(△8.9)
- (천연가스) '11년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일본수출이 확대되어 한국으로의 수출물량 감소세
 - '10년 8.2억 달러에서 11년 10.5억 달러로 28.7% 증가하였으나, '12년 5월까지 4.4억 달러 수출로 전년동기대비 25.7% 감소
 - * 러시아産 천연가스의 對일본 수출비중(%) : '10년) 17.4 → '11년) 26.6
- (석탄 나프타, 유연탄, 고철, 스크랩) '12년 5월 기준 석탄 2.7%, 알루미늄 17.2%, 합금철선 및 고철 6.4% 증가

□ (카자흐스탄) 자원 수출 제한 규제 철폐로 대한 수출 증가 전망

- '12년 하반기 자원부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카자흐스탄의 수출 제한 규제가 철폐될 예정으로 기존 수출제한 품목의 對한국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석유제품, 석고, 석회, 시멘트, 알루미늄 등의 對한국 수출 증가 기대

Global Market Report 12-014

해외시장에서 바라본
2012 하반기 지역별 수출입 전망

발 행 인 | 오영호
편 집 인 | 배창헌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2년 6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